

문화/생활

공연/전시

브라질 설치작가 카르발료사 왔다. 전봇대 9개...Sala de Espera

기사등록 일시 [2013-10-11 19:41:18]

공인인증하기 이메일 보내기 구독하기



서울=뉴시스】유상우 기자 = 서울 종로구 소격동 국제갤러리 3관에 들어서면 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친다. 8~12m짜리 육중한 나무 전신주에서 새어나온 냄새다.

기름을 먹은 이 전신주 9개가 국제갤러리 전시장을 가로 지어 설치됐다. 브라질의 설치작가 칼리토 카르발료사(52)가 현지에서 가져온 것이다.

작품은 '대기실'이란 의미의 '살라 드 에스페라(Sala de Espera)'다. '대기'는 '기다린다'는 의미이다. 그는 "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며,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작업"이라고 설명했다.

"같은 공간에 전시해도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"며 "그 순간 작품을 보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"고 강조했다. "처음에는 숲에 있던 나무가 전신주의 역할로, 그리고 지금은 예술작품의 재료로 사용됐다. 각각 역사가 있는 이 재료를 네모난 하얀 공간에 설치함으로써 새롭게 느낄 수 있다"는 설명이다.

이 작품을 하게 된 계기는 특별하지 않다. "끊임없이 시도하고 실험한다"는 작가는 "개인적으로 어떤 작품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. 계속해서 새로운 기대를 하면서 작품을 제작한다"고 말했다.

이번 전시는 카르발료사의 한국 첫 개인전이다.

상파울루에서 태어난 그는 1984년 상파울루 대학의 건축과 도시학과에서 건축학위를 받았다. 국제적인 전시 및 비엔날레 등에 참여했다. 전시기관으로는 상파울루 국제비엔날레, 하바나 비엔날레, 브라질 세쿨로 XX 비엔날레, 메르코술 비엔날레와 프랑스 보르도 CAPC에서 열린 '코트야코트 브라질 컨템포러리 아트 전' 등이 있다.

'살라 드 에스페라'는 오스카 니마이어가 디자인한 상파울루 현대미술관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.

전시 기간은 12일부터 11월12일까지다. 02-735-8449

swryu@newsis.com